

영광군,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 마을 평가 '최우수상' 수상

군남면 죽신마을,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설립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력 보리 활용 지역 농가 소득 증대·마을 어르신 정기적 문화체험 진행 등

영광군이 지난 10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 마을 및 기업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시상 사업비 4백 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인구문제 극복 참여 분위기 조성고 우수시책 발굴·확산을 위해 인구정책 실천에 적극 참여한 도내 우수 마을과 기업을 선정·시상하는 평가로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강화, 소득증대, 청

년고용 확대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영광군의 군남면 죽신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군남면 죽신마을은 잘보리 주산지로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라 보리농가의 소득 하락 및 보리산업의 위기가 찾아오자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대표농산물인 보리를 활용한 마을기업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

해 왔다.

보리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판매 등으로 지난 5년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마을 출신의 돌아온 청년들과 마을 어르신들의 세대간 협업을 통한 운영, 마을기업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고령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상생, 지역에 꾸준한 기부(봉사)활동 추진, 마을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

여하여 정기적인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성 강화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죽신마을 이선화 대표가는 이날 시상식에서 '세대간 어울림, 웃어보리'라는 주제로 귀농청년과 마을주민 간 협업을 통한 마을기업의 성장 추이, 소득 창출 과정, 성과 등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준성 군수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인구정책 우수 마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우수사례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



민 모두가 인구문제 극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인구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AI 대비 선제 방역... "드론 등 가용자원 총동원"

해보면 고막원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



함평군 방제단이 지난 9일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나산면 가금 농가를 방역하고 있는 모습

함평 지역 철새도래지인 해보면 고막원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함평군이 특별방역에 나섰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지난 5일 전남 영암에 이어 전남 오후 나주까지 번졌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전남도 전체에 감염 확산 우려를 보이

고 있다.

함평군은 우선 전남도 방역 지침에 따라 고막원천 주변을 긴급 방역하고 통제소 설치로 통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km 이내를 특별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진행된 방역지역 내 농가 36곳에 대한 임상 예방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전국적인 AI 확산세를 감안해 거점소독시설 등 가금 농장 통제소소를 기존 9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농가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하고 공무원 비상근무 등 공동방제반 운영을 통해 현장 방역지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긴급행정부령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 가금 농가 전체에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각 농가에는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정비도 함께 요청했다.

군은 지금까지 뚜렷한 AI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철새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

하여 추진한 보장계획 실적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은 농어촌 1,000원 행복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목욕 및 이미용권 확대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드림봉사단 연합봉사,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 입소문

신속 배차·편리한 이용방법 호응



목포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이 신속한 배차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복지'

를 구현하기 위한 시정목표의 일환으로 법인과 개인택시 콜센터 다수 운영에 따른 이중배차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힘을 모아 '목포 낭만콜'을 추진했다.

추진 사업비는 총 1억 2천 5백만원으로 목포시가 1억원을 지원하여 앱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9개 법인과 개인택시에서 2천 5백만원을 부담하여 브랜드콜 홍보 이미지 제작 및 택시 외부디자인 작업을 진행했

다.

'목포 낭만콜'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거리 배차시스템을 적용해 신속한 배차로 이용객들의 기다림이 줄어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타 모바일 앱과 다르게 전화콜(☎ 1688-8255)로도 호출이 가능한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택시종사자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신안군, 비대면 생활원에 교육 '호응'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신안군은 지난 9일 14개읍면 선도여성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생활원에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원에 교육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섬으로 이뤄진 지역특성상 실습재료인 교육키트는 택배로 배부하고 온라인교육이 서툰 교육생들을 위해 서버접속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과가 끝난 저



년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추진하여 큰 호응이 얻었다.

이은이 확산면생활개선회장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지역은 교육을 받기가 힘든데, 이번 비대면 교육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식물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동채본부

무안군, 무등 행정大賞

지역발전분야 우수 자치단체

무안군이 10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컨벤션2홀에서 열린 '2020년 제4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무등 행정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 7기 2차년도(2019.7.1.~2020.6.30.)에 역점으로 시행한 정책 중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구 시장부지 정비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여촌 뉴딜 300,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 등 가시적인 지역발전 성과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탁월한 사업 14개를 주요 공적으로 제출하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무안=이기성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